서평: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관리 양상과 보건문제

현지 역학조사의 연구자료와 체험을 바탕으로 – 못다한 이야기들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관리 양상과
보건문제

김정순 지음
2017. 02. 20
신광출판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현술

한국 역학의 개척자로 국민훈장 동백장, 옥조근정훈장 및 모란장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정순 명예교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석 같은 책을 출간하셨다. 이미 전설이 된 많은 기념비적인 역학연구의 연구 방법과 결론을 추론해가는 과정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학술지를 발표할 때 하지 못한 현지 체험 비화를 수록하였다. 더구나 보건학적 의의와 새로 얻은 경험 및 귀중한 교훈, 일부 연구원의 감회까지 생동감 넘치는 필체로 포괄하여 소개하고 있다.

최근 어떠한 질병이나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가 크다. 이때 조사자가 축적해놓은 오랜 경험은 매우 요긴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기 마련인데, 만약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인이 해놓은 것을 참조하며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간접 경험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때 유용하게 참고할 만큼 체계적으로 기술해 놓은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이 책의 출간은 적시안타의 한 수로서 역학조사의 지침서,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장 '원인불명질환(괴질)의 원인을 찾아서'에서는 국내 최초로 밝힌 레지오넬라증 및 렙토스피라증, 또한 신안군에서 발생한 탄저 유행, 외항선원에서 발생한 납중독에 대하여 원인(균)을 파악해 가는 과정을 추리소설을 보듯이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외항선원의 납중독 사례는 일본에서 균을 분리해 렙토스피라증으로 진단했지만, 선원 전원이 질병에 걸려있는 사실에 주목, 일부에서만 발생되는 감염병이 아니라고 추정한 후, 증상 및

징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납중독으로 진단하는 과정은 감염병과 중독증을 구별해 진단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2장 '전염병 방역을 위한 유행 원인과 전파경로를 찾아서'에서는 장티푸스 유행들과 콜레라 유행에 대한 전파경로를 밝혀가는 과정을 박진감 넘치게 기술하고 있다.

3장 '제주도민의 고질적 기생충증의 역학적 특성과 집단 치료의 퇴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주도 폐흡충증과 사상충증의 퇴치사업과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여 질병 퇴치기법을 터득할 수 있다.

4장 '말레이시아 폐흡충의 생태학적,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연구 및 체험을 기술해 놓아 국외에서 연구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배울 수 있다.

5장 '유해 환경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판정 기준 설정을 위한 효율적 진단방법의 선정을 위한 역학적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한 (주)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CS_2) 중독증 역학조사와 파월 국군장병의 고엽제 역학조사의 진행 과정 등을 통하여 직업 및 환경역학에 관해 접할 수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 역학조사는 포괄적인 단면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직업병 판정 기준을 선정, 인정 범위를 확대한 과정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다. 또한, 고엽제 역학조사는 단면조사를 통해 노출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과 한국적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을 결정하는 그간의 과정을 총망라해 배울 수 있다.

6장 '한국인의 상병 양상 및 관리행태와 보건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7장 '이주 한국인, 만주 조선족의 사망 및 상병 양상과 보건문제'를 통해서는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상병 조사와 만주 조선족, 한족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양상 비교를 통해 기술역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의학과 보건학,
특히 역학을 공부하거나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서로
대용할만한 필독서이다.

또한 감염병과 유해물질(납 · 이황화탄소 · 고엽제)에 의한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현지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뒷이야기, 보건학적 의의와 새로 얻은 경험 및 교훈을 제시하므로 논문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경험의 실체를 접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의학적 경험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경험들에 관해서도 다루어 눈길을 끌었는데, 예를 들면 하늘의 도움을 얻는 방법, 기자의 기지를 인지하는 방법, 현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 무능하고 부정직한 연구기관에 대처하는 방법 및 반대 견해에 대한 대응법 등등 실로, 무궁무진한 지혜들이 줄줄이 실려 있다.

의학과 보건학, 특히 역학을 공부하거나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서로 대용할만한 필독서이다. 일반인에게는 역학 및 역학조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역학이라는 한 분야에 몰두, 국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가 역학 전문가로서 감염병, 직업병 및 환경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열정을 다한 삶, 그러면서 학자적 양심을 끝까지 지킨 참된 원로학자의 이야기는 뭉클한 감동과 함께 무릇 학자들이 걸어가야 할 거울과도 같은 길을 가르쳐준다.